

혹한·폭염에 폭풍까지... 지구촌 이상기후 몸살

북미 영하 37℃ 2억명 덜덜... 20여명 사망 남미는 100년만에 찜통더위... 50℃ 기록도

미국 내륙 지역에는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고 남미에서는 기록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유럽은 포근한 겨울 속에 폭풍과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이례적인 한파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 내륙지역 폭설에 한파·영하 37℃까지=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강타한 북극 한파로 최대 2억명 가량이 추위에 떠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 북부를 제외한 지역과, 미국의 노스다코타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등 내륙 지역이 한파 영향권에 들었으며, 미국 미네소타주 크레인 레이크 온 6일(현지시각) 기온이 영하 37.8℃를 기록하기도 했다.

바람으로 열을 빼앗길 때 사람 몸이 느끼는 풍속냉각(wind chill) 온도는 더 낮아 느껴지는 영하 52도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위는 남극 혹은 북극은 물론이고 지구 밖 궤도를 도는 화성 일부 지역과 맞먹거나 더 심한 수준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시카고 지역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적설량이 최대 46cm에 달했다.

연이은 폭설과 혹한으로 미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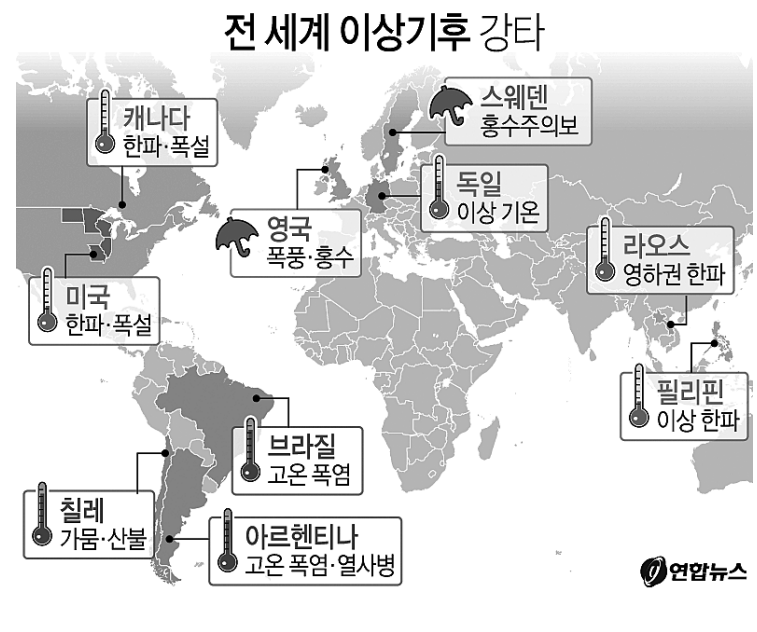
하지만 폭풍 등으로 유럽 북서부의 강수량이 늘어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스웨덴은 6일 강수량이 늘어 홍수 수위가 최대 1m까지 오르고 있다며 홍수 1급 주의보를 내렸다.

지난 5일에는 영국의 웨일스 등 남서부 해안에서 8.2m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콘월과 스코틀랜드의 가옥 수백 채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동남아시아도 이례적 한파=라오스 북부지역의 경우 각급학교의 오전 수업이 중단되는 등 극심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북부 지역에도 이상 한파로 농작기계에 서리가 내리면서 채소류 수급이 차질이 벌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연말뉴스



북미 대륙에 때어난 혹한이 몰아치면서 8일 미국 시카고 노스 애비뉴 비치 인근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얼어붙어 있다.

“인재양성” 호남미래포럼 운영조직 확정

공동대표에 김승규·손수익 등 8명 선임

호남의 낙후성과 차별을 극복,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이 8일 고문과 공동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운영조직을 확정했다.

호남미래포럼은 또 오는 2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신년 호남발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차별과 배제의 실상과 인재등용 및 양성 방안, 그리고 호남

기업 퇴보 원인과 성장대책 등을 다룬 예정이다. <관련기사 18면>

호남미래포럼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포럼을 자문하고 운영해 나갈 고문 및 공동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발표했다.

고문으로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경욱 예술원 회장, 김성훈 전 건설부 장관, 김경길 전 법무부 장관, 이강환 전 대한생명 회장, 전성홍 전 전남지사, 이균범 전 전남지사, 이용식 변호사

등을 추대했다.

또 포럼운영에 방향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공동대표에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 손수익 전 교통부장관,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 김양균 전 헌법재판관, 박경서 전 한국인권대사, 신승남 전 검찰총장,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을 선임했다.

포럼 운영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운영위원으로는 김성호 삼일운영위원외에 안주섭 전 보건처 장관, 문병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재홍 조 선대 총장, 이수행 도시·미래연구대

“민주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원칙”

이용섭 의원 밝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광주시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전략공천은 안 되고 경선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발굴해서 뽑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치활동을 오래 하지 않아 인지도가 낮아서 경선에서 될 가능성은 낮다”며 “지도부가 필요하다면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이 훌륭한 사람을 발굴해 (전략) 공천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해 이 의원



은 “광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시민의 뜻을 살려서 제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경선을 동원선거나 조직선거, 돈선거를 통해 이기고 보자는 구태 세력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동원선거와 조직선거를 막고 본연의 정력을 높이려면 (경선에서) 시민(참여)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구태 세력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감 “직선제 유지돼야”

“임명·러닝메이트 반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8일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교육감 임명제나 단체장 러닝메이트 제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현행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안정화됐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 전체가 참여하

는 현행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만재 교육감도 “선거제도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토론 등의 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교육자치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은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며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정경발표 등을 관리하는 완전 공명제를 시행해 직선제에 드는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여 달라”고 건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윤장현 지지 시민단체 오늘 난장토론

광주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인 '광주를 묻고 찾는 사람들'(대표 정석주)은 9일 오후 2시 광주 YMCA 2층 무진관에서 '난장토론'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선다.

진행된다.

윤 위원장을 지지하는 단체로 알려진 민주당 탈당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70여명으로 구성된 새정치실천연합(대표 최형주) 등 6개 단체에서 1명씩 대표로 나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는 000이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3가지 주제로 전남대 5·18 연구소 운영팀 교수의 사회로

이춘희 명창이 아리랑메들리를 부를 때 진도아리랑이 포함되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KBS는 또 “타종행사는 광주에서는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원 5000수익 최고위치,전면대리서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룬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전문 원룸

룬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예술대 2분 코너앞

룬 13개(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 최고위치 월수익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수원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쌍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을 대로면 149평 은행 2억 3억6천 매도2억9천
- 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업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12억2천
- 금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면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상업지 694㎡(210평)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10억6천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금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 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통물사육·아직장등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충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야 무안군 풍탄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찰적합 건물 합평군 월안면 땅 2657㎡(804)건물 2층 57평 은행 2억 2억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전원주택지 청풍동 777㎡(235)1억5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